

시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세운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치유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 사6:13에 렘넌트를 “거룩한 씨”라고 했고, 본문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들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했다. 씨는 작지만 그냥 씨가 아니다. 하나님이 심은 씨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사60:22). **한 사람의 렘넌트가 세워져도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일곱 렘넌트가 다 그런 한 사람이었다. 요셉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정 불화로 완전히 무너질 가정을 살리고, 기근으로 굶어죽어야 할 형제들을 살려 12지파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이집트제국의 왕과 백성, 전 세계 살린 것이다. 누가 하신 일인가? **한 사람이 세워진다고 그 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 옆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불러 팀이 되게 만드셨다.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쓰임 받는 팀이 된 것이다. 형제들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제국을 살린 팀이 된 것이다. 친구들이다. 바울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디모데와 디도, 루디아, 브리스가 아굴라, 그들이 로마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는 팀이 된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제자들이다. **우리가 RUTC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Unity Training, 함께 훈련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함께 윈네스가 되고, 팀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을 위해서 전 세계에 RUTC를 세우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RUTC가 세계 RUTC의 제1호이다. 그 RUTC를 진짜 훈련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RUTC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제목대로 “치유 사역”이다.

1. 일단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치유 받을 것이 많다. 육신 치유, 마음 치유, 관계 치유, 경제 치유, 그 모든 치유의 시작이 영적 치유다. 영적 치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적어도 세가지 면에서 영적 치유라는 말이 이해 되어야 한다.

1)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직접 귀신이 역사해서, 귀신이 들려서 오는 문제도 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실제로 귀신이 나가면서 여러 질병이 치유되는 기록들이 있다(마12:22, 눅13:11) 주로 우상숭배나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많이 한 집안이나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다(고전10:20)

2) 중요한 것은 창3장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이다. 첫 인생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생과 세상 속에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세가지 저주다. 원죄의 저주(롬3:10, 롬3:20), 사단의 저주(요8:44, 요10:10), 죽음과 그 이후의 지옥 저주다(롬5:12, 히9:28). 아이들이 안 가르쳐줘도 죄부터 배운다. 끝없는 타락이 계속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생을 도적질하며 계속 문제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선택 안했는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가 계속 문제, 고통, 실패, 재앙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못 빠져 나오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한다. 그것을 치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다.

① 상처가 있다. 성장 과정, 가문의 배경, 과거의 경험들이다. 거의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다.

뭔가 외롭고 두려웠던 경험들, 뭔가 억울했던 경험들(편애, 비교의식, 무시당함), 가난, 치료받지 못한 질병들도 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모든 것이 무의식, 잠재의식에 남은 채 사춘기를 맞고, 어른이 되기도 한다.

②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린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울증 같은 감정의 병으로 오기도 하고, 도피, 공격성, 폭력, 성격 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각종 중독(게임, 알콜, 마약, 도박, 성공)에 빠지게도 한다. 시작은 마음의 상처이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자꾸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유해주려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영적인 치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의 치유라는 것은 사랑, 격려, 이해로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후의 흑암 세력을 꺾어주는 것이다.

2. 본문에 이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다.

1절에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분이 오신다는 것이다. 누구인가? 그 분이 그리스도이다.

1) 그 분이 뭘 하신다고 했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고통과 근심이 있는 자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다.

2) 어떻게 하시는가? 그 분이 기름부음을 받은 세가지 권세를 가지고 하신 것이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죄, 저주, 실패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모토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아예 모든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다. 이 세가지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저주, 사단, 모든 문제, 운명을 끝낸 것이다(요19:30). 이 결론이 나와 한다.

3)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접이다(요1:12, 계3:20)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나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로 행복, 충분, 모든 것)

① 불신자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영접을 하는 것이다. 불신자 스스로 못하니 영접 기도를 도와준다.

②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매 순간, 매일, 내 평생에 그 분이 주인으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한다. 그것이 갈2:20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인생이 주님이 이끄시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③ 우리가 3오늘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 속에서 그분의 힘을 얻으며, 전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소원인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너무 정확히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어느날 내 생각의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흑암이 꺾이고(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계속 체험된다. 내 하는 일, 만남, 장소, 시간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깐 간증할 수 밖에 없는 증거들이 계속 되는 것이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결론-우리가 RUTC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렘넌트 때부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깊이 알게 하는 것이다. 렘넌트때 그 분이 주인 되는 삶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 기준, 수준,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전도도, 인생도 되어지는 삶을 평생 체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치유다. 각자가 이렇게 치유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올 렘넌트 시대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